

## 이상농촌운동의 역사 소고 - 시작에서 1945년 이전까지 -

임광명\*

평택대학교 교양학부(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3825)

### 국문요약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농촌운동 중 하나로 이상촌운동을 들 수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세기 전에 이미 농촌을 이상적으로 개발하여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이를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계획하여 실천하려고 하였다. 서양에서는 영국의 토마스 모어가 1516년 『유토피아』를 발표하면서 시작되었고, 이어서 로버트 오언을 이어 세계 각국에 다양한 형태로 번졌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6세기 노자의 소국과민사상과 4세기에 도연명의 무릉도원이란 이상사회를 그렸다. 한국의 대표적인 이상촌은 허균이 쓴 소설 홍길동전에 나오는 울도국과 박지원의 허생전에 나오는 공도, 그리고 중요한 이상촌 운동으로는 구한 말기부터 조국을 구하려고 전국 각지와 만주와 미주에 이르기까지 일어났던 신민회의 이상촌운동이 농촌을 지키는데 기여했고, 농민들에게 모범이 되어 일제의 탄압과 착취에 저항하고 참고 살아가는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한국의 독립을 쟁취하는데 희망을 주었다. 그 운동은 해방 후에도 가나안농군학교와 새마을운동으로 이어져 조국을 근대화시키는데 그 바탕이 되었다.

주요어: 이상향, 이상촌운동, 사회운동

\* 평택대학교 교양학부 lkm3719@hanmail.net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뿌리가 부실한 나무는 흔들려 결국 죽는 것처럼 한국 근대화의 초석이었던 한국의 이상농촌운동을 빼고 언급한다면 한국의 발전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스라엘은 기부츠와 모샤브라는 이상농촌운동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으로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다. 이제는 농업과 농촌으로 하여금 급격한 산업사회로 인한 부작용으로부터 한국을 구해줄 희망으로 재탄생해야 할 때가 되었다. 한국의 농촌, 농민운동은 과거 신분사회의 모순과 식민지의 질곡에서 벗어나려는 개화 운동의 하나로 한국의 특수한 토양에서 성장하였다. 한국의 오랜 역사와 특별히 개화기를 전후하여 한국인의 자주자강 정신과 협동정신, 근검절약정신과 근로희생정신 등은 모질게 연단된 강철처럼 한민족의 성품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근래 한국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이 정신과 삶이 해이해져서 남북통일을 앞둔 한국인에게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 민족의 힘의 기반이 되었던 농촌, 농민이 한국과 세계 여러 나라의 이상농촌운동으로 근대화된 새마을을 가꾸어 진정한 협동사회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 지혜를 과거의 성공과 실패의 역사 속에서 찾으려한다.

이와 같이 이상농촌 건설에 대한 염원과 계획은 동양에서 오래 전에 시도되었지만 이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한 것은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북유럽 여러 나라들이었다. 이제는 지역사회개발 이론에서부터 도시공학과 다양한 지역학으로 발전하여 실용적이고 중요한 학문으로 변신 발전하였다. 동양에서도 중국과 한국의 선각자들이 생각하고 계획하였으나 실용적인 학문으로 더 깊이 있게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나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웠던 한국의 개화기 국권보존의 절박한 시기에 신민회가

별인 독립운동의 사업으로 구상되어 널리 퍼져 건설되었고, 그 이상촌은 동은 한반도의 반쪽 한국을 세계의 모범국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 1.2. 이상촌의 의미

이상촌(理想村)이란 말은 그 글자가 의미하는 대로 사람이 꼭 이루어 보고 싶은 이상적인 마을이다. 서양 사람들은 이를 유토피아(Utopia) 또는 이상향(理想鄉)이라고 한다. 아마도 이런 마을(사회)은 지배자의 억압이나 착취가 없고 서로 나누고 도우면서 살아가고, 가난과 질병이 없는 건강하고 평화로운, 행복한 이상적인 공동체일 것이다. 그런데 그 이상의 정도에 따라서는 환상적인 경우와 현실보다 좀 개선된 이상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구한말에 한국에 출현한 이상촌이나 이스라엘의 키브츠, 모샤브는 국권을 지키는 방법으로 이상촌을 시작한 경우도 있다.

동-서양의 이상촌을 비교해 보면 가치관이나 느낌의 차이에서 좀 차이가 있다. 예컨대 서양의 경우에는 잘 계획된 도시가 이상촌의 배경이 되는데 비하여 동양의 경우에는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진 농촌이다. 동양의 경우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친 중국의 도연명(陶淵明)의 무능도원(武陵桃園)은 자연적이고 목가적인 평화스런 농촌마을인데 비하여, 서양의 경우 토마스 모어(Thomas More)의 유토피아는 54개로 구획하여 계획된 도시라는 점이 다르다. 한국의 홍길동전에 나오는 울도국(栗島國)이나 허생전에 나오는 공도(空島) 그리고 개화기의 이상촌도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동-서양의 옛 이상촌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이들은 모두 농사를 짓는 농민이었고, 그 정착지는 현실 세계와 일정한 거리가 있는 별개의 지역이었다. 예컨대 깊은 산중 마을이 아니면 동굴과 같은 것을 통과해야 갈 수 있는 곳, 또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섬이나 별천지 같은 곳이다. 유토피아나 캄파넬라의 태양국(太陽國)은 모

두 섬이다. 모어의 유토피아는 원래 육지였는데 그 곳을 발견한 유토피스가 땅을 파서 섬으로 만든다. 그리고 섬은 성벽으로 둘러 싸여 있고, 주 위에는 암초가 널려있어서 이 섬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면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와 같이 현실 세계와 다른 세상을 그리는 것은 이상촌이 지금의 현실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곳을 강조한다. 그러나 근대의 이상촌은 실용적이고 과학적 성격이 강하다.

## 2. 서양의 이상촌

### 2.1.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서양 세계에서 말하는 유토피아(utopia)를 흔히 이상향(理想郷)이라 번역하는데, 그 말은 이상촌이라는 말과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 이상향은 서양 사람들이 그들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사람들이 구상하였고 이를 실현해 보려고 노력하였으며, 그 노력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부단하게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근래에도 이 유토피아라는 말을 사용하여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보면 그 이상향을 동경하는 마음은 한 시대의 유행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컴퓨터피아’나 ‘오토피아’ ‘포토피아’ 등과 같은 말은 자주 쓰는 말이 되었다. 오늘도 어떤 종교적 신념이나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유토피아 또는 이상촌을 건설해 보려고 하는 노력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끊임이 지속되고 있다.

#### 2.1.1. 성립

『유토피아』는 영국의 사상가이며 정치가인 토마스 모어(Thomas More)가 1516년에 정치적인 공상을 이야기 형식으로 쓴 책의 이름이다.

그는 가공의 인물 히틀로다메우스(Hitlodameus)가 신세계에서 보고 들은 여러 나라들, 그 중에서도 유토피아에 관한 이야기를 토마스 모어와 서로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글을 썼다.

Utopia라는 말은 토마스 모어가 그리스어의 ‘없는(ou-)’이라는 말과 ‘장소(toppos)’라는 두 단어를 결합하여 새로 만든 말로서, “어디에도 없는 곳” 또는 “실현 불가능한 공상이나 꿈”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이런 뜻을 다른 측면으로 보면 현재는 없으나 장차 도달할 수 있는 목표로서의 이상을 가리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유토피아는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사회는 아니지만, 그것은 현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본이 되어 현실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개혁할 수 있게 만드는 거울이요 지침이다. 그래서 유토피아와 같은 이상촌을 이 사회에 제시해 보이는 것은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나 막연한 꿈이 아니라 그 사회개혁에 대한 혁명적 변화를 달성하기 위한 제안이고 이 땅에 실현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토마스 모어 이후의 초기 유토피아는 비교적 공상적이고 현실 도피적이라고 하여 그것을 고전적 유토피아라고 하는데 반하여, 19세기 이후의 유토피아는 체계적이고 건설적이며 다분히 사회개혁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근대적 유토피아라고 한다.(김영한, 1995) 그것이 비록 고전적인 유토피아라 해도 그 비판적 시각은 우리의 현실 문제를 재음미하게 하고, 그 재음미를 통하여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한다.

### 2.1.2 내용

〈유토피아〉 군주들이 대내적으로는 국민을 수탈하여 부를 축적하고,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은 소나 짐승보다도 더 심한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이들 군주들이 영토를 확대하려고 대단히 호전적

으로 변화였다. ‘유토피아’의 제2부에서는 제1부에서 한 그 비판을 토대로 하여 이상적인 사회가 구상된다.

그는 인간 사회라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준칙)이 있다 하여 그것을 제시하여 주었다. 그리고 그가 제시해 준 길은 지금도 유럽사회의 저변에 흐르고 있으며, 유럽사회를 변혁시키는 강력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랄한 현실비판에 토대를 두었던 모어는 유토피아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조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무질서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둘째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생산규모와 그 속에서 일하는 농민의 윤리가 강조되는 사회이어야 한다. 즉 현실세계에서 일하면서도 빼앗기는 자와 일하지 않고서도 많이 가진 자가 함께 사는 세상을 거부 하며, 셋째로 유토피아에서는 사유재산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사유재산이 있고 모든 것이 돈으로 평가되는 곳에는 정의와 변영이 실현될 수 없다고 한다.

### 2.1.3. 성격

완벽한 능력을 가진 지도자의 절대적인 통솔이 요구된다고 하여 유토피아가 그 성격상 전체주의적인 경향을 띤다고 말한다. 그리고 유토피아는 모순이 많고 불완전한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므로 이 세상과는 격리되어야 하며 완벽한 생활이 가능해야 함으로 자급자족적인 체제로서 자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사회라야 한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는 시민들은 의무적으로 2년간 번갈아가면서 농사를 지어야 하며, 이들 농촌마을은 한 마을에 30가구씩 단위를 정하였다. 사유재산은 인정하지 않고 농촌에서 쓸 물건은 도시에서 무상으로 가져오고 도시의 식량은 농촌에서 보급해 준다.

#### 2.1.4. 배경과 계승발달

유토피아는 항해술의 발달과 유관하다. 즉 기존 자기들만의 사회질서와 다른 세계를 비교함으로써 자신을 비판적으로 반성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하였고, 나아가 새로운 사회체제를 구상하는데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주었다. 토마스 모어 이후 르네상스 기에는 캄파넬라(Companella)의 <태양의 도시>(1623)와 F. 베이컨(Francis Bacon)의 <뉴아틀란티스>(1627) 등이 연이어 출현하였다. 그리고 사회가 불안했던 영국의 시민 혁명기에는 S. 하틀리브(Hartlib)의 <마카리아공화국(1641)> 외에도 S. 고트의 <모바 솔리마>(1648), G. 윈스턴리의 <자유의 법>(1652), J. 해링턴(Harrington)의 <오세아나 공화국>(1656) 등의 책이 출간되었는데 그 당시의 사회적 위기의식은 유토피아 사상을 잉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어머니 역할 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18-19세기에도 풍성한 유토피아사상이 나타났다. 영국에서 공장경영자로 성공한 로버트 오언(Robert Owen)도 유토피아를 구상하였다. 1829년 사르르 푸리에(Furier Charls)는 이상적인 사회주의자였다. <산업적이고 협동사회적인 신세계>라는 글에서 말하기를 그는 농업이나 상업이 '거꾸로 된 세계'라 하고 이를 바로 세우는 <팔란주>라 부르는 협동체를 구상하였다.

로버트 오언(Robert Owen, 1771-1858)은 그가 세운 기업체에서 이상촌의 정신을 살리려고 하여 공장 안에 유치원을 세우고 어린이 노동을 금하였으며, 협동조합을 창설하여 협동적인 이상촌을 건설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미국으로 건너가 협동촌(協同村)을 세워 뜻을 펼쳐 보려 했으나 그것도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의 협동주의 사상은 후세에 귀한 교훈을 주었다.

유럽의 근대적 유토피아는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하여 필라레떼가 구상한 이상도시를(최종현, 1998) 구상하여 실용주의적으로 변한 것이었다.(유병림, 1988). 19세기 산업화가 성숙되면서 이농현상과 더불어 저임금 노동

자들과 어린이 노동자의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 2.2. 이스라엘의 키부츠와 모샤브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나라를 잃고 세계 각처로 흩어져 유리결식한 이후 근 2000년이 지나서 그들은 나라를 재건하자는 시온주의(Zionism)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그들의 고향 이스라엘로 모여들기 시작하였지만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주변 아랍인들의 테러와 핍박이 심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위협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데 뭉쳐 집단 공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키부츠이며 모샤브라 하는 이상촌이 형성된 것이다.

### 2.2.1. 키부츠(kibbutz)

시온주의운동으로 이스라엘로 돌아 온 초기의 유대인들은 대개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다가 돌아 온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그들 정착민들의 집단농업 공동체도 그와 유사한 사회주의 형태를 취하게 된 <키부츠>가 활발하였다. 1909년 갈릴리 해변 데가니아(Degania)에 시작하여 1921년에 이르러서야 이스라엘 계곡에 첫 키부츠가 창설되었다. 이 키부츠는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공동체로서 이민자들의 정착과 이스라엘 주변국의 테러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공동체였다. 그리고 나아가 농업 발전에 중심이 되어 뒤에 이스라엘 건국과 국가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모체가 되었다. 농업이 주업이던 이들이 근래에는 식품가공과 인쇄, 방직, 다이아몬드 가공을 위시하여 관광호텔과 식당 등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 벤구리온과 6일전쟁의 영웅 모세 다얀 장군 등 초창기 국가지도자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회 각계각층의 이스라엘 지도



자들이 대부분 이 키부츠 출신들이다. 그러나 이 키부츠의 역할이 서서히 정부로 이양되고, 또 사회주의 사회체제에 대한 매력이 감소되면서 1970년 이후부터는 그 강력했던 정치적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 2.2.2. 모샤브(Moshav)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다가 이민해 온 유대인들에게는 키부츠 체제가 잘 맞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농업에 정착하지 못한 채 키부츠와 함께 1921년 이스라엘 계곡에 그들에게 맞는 공동체 모샤브를 세웠다. 한 개의 모샤브는 대개 60여 가구의 규모로 이루어진 집단 농촌마을이다. 키부츠와 유사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사유재산(私有財産)을 인정하고 생활이 비교적 자유스럽다는 것이다. 즉 한 가정을 단위로 하여 그들 소유의 집과 농장을 소유할 수 있으며, 그 협동체의 구성단위가 된다. 그리고 공동시장체제를 갖추고 있어서 생산과 소비, 교육과 의료 그리고 문화생활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 모샤브는 일단 회원을 모아 구성하면 영농계획을 세우고, 이스라엘 국토관리청에서 토지를 임대받아 개간사업을 한다. 그리고 작물을 키우고 수확을 하며 판매에 이르기까지 협동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한다. 모샤브의 노동력은 가족을 단위로 하고, 농장의 생산물은 모샤브의 조직을 통하여 시장에 판매되며, 조직은 회원에게 농업기계와 각종 기구를 제공해 주고, 땅과 물도 회원에게 골고루 나누어 준다. 자본주의적 성격을 가진 체제이지만 모샤브의 회원들 사이에서는 서로 협조하고 공동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따라서 모샤브는 개인의 이윤을 중심으로 하고, 키부츠처럼 자급자족적인 체제가 아닌 공동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일종의 협동조합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그 시작은 키부츠와 같이 제1차 세계대전 직후 1921년에 탄생하였지만 1930년에 이르러서야 오늘 날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초창기 모샤브는 키부츠처럼 이스라엘 발전과 건국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하였지만, 오늘 날에 이르러서는 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샤브를 선호하여 키부츠는 쇠하는데 비하여 모샤브는 흥하고 있다. 60여개 가정을 단위로 한 모샤브는 전국적으로 대략 450여 개나 있으며 인구의 5%가 여기에서 살고 있다.

### 3. 중국의 이상촌

일반적으로 이상촌에 관한 구상과 기록은 옛날로 올라갈수록 환상적이고 관념적이지만, 근세로 가까이 올수록 구체적이 소국과민(小國寡民)사상은 중국 노자(老子)가 주장한 무위무욕(無爲無慾)을 강조하면서 그가 구상해 본 이상사회를 기술한 고전이다. 나라들마다 그 영토와 인구를 늘려 강한 나라가 되고자 서로 경쟁하고 전쟁을 일삼는 세상인데, 노자는 그와 반대로 나라의 규모를 적게 하고 백성의 숫자를 줄이며 문명을 발달시키지 말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무위(無爲)와 무욕(無慾)의 이상촌을 꿈꾸고 있었다. 이런 이상촌은 아주 먼 옛날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 소박하게 살아가던 시절의 조그만 농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문명이 발달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는 더 많은 갈등과 싸움으로 편안한 날이 없게 되었다. 이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노자의 소국과민의 이상촌은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서양에서는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이 이미 발표되었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상촌은 16세기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모어의 유토피아와 유사한 이상촌이 4세기 경 중국에서 나타났는데, 그것이 도연명이 쓴 도화원기(桃花源記)다. 한국에서는 이후 도화원기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과 유사한 환상적인 이상촌이 나타났고, 조선조에 이르러서는 서양의 유토피아와 유사한 사회문제의 비판과 그 대안 제

시라는 형태의 이상촌이 출현하였다. 구한말과 일제하에서는 국권회복이라는 구체적이고 현세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상촌이 구상, 건설되었다.

### 3.1. 노자의 소국과민(이석명, 2010)

소국과민(小國寡民)사상은 중국 노자(老子)가 주장한 무위무욕을 강조하면서 그가 구상해 본 이상사회를 기술한 고전이다. 나라들마다 그 영토와 인구를 늘려 강한 나라가 되고자 서로 경쟁하고 전쟁을 일삼는 세상인데, 노자는 그와 반대로 나라의 규모를 적게 하고 백성의 숫자를 줄이며 문명을 발달시키지 말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무위와 무욕의 이상촌을 꿈꾸고 있었다. 이런 이상촌은 아주 먼 옛날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 소박하게 살아가던 시절의 조그만 농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문명의 발달이 좋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는 더 많은 갈등과 싸움으로 편안한 날이 없게 되었다. 이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노자의 소국과민의 이상촌은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소국과민의 이상촌은 우선 한 나라 백성의 수가 적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곧 무욕으로 연결된다. 뿐만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대두되기 시작한 다원적 소국가관 역시 소국과민사상과 일맥상통하는 생각이라고 보여 진다.

### 3.2. 도연명의 무능도원(이치수, 2005)

도연명(陶淵明)은 서기 365년에 태어난 중국 동진(東晉)과 송대(宋代)의 시인이다. 그가 쓴 도화원기(桃花源記)를 보면 동진이라는 나라 태원(太元) 때(376-396)에 무능이라는 마을에 사는 한 어부가 배를 타고 가다가 도화림(桃花林)이라는 곳에서 길을 잃었다. 어부는 배에서 내려 산속

의 동굴을 따라 나아갔는데, 마침내 어떤 평화로운 마을에 이르렀는데 그곳이 무능도원(武陵桃源)이었다. 그 곳에는 논밭과 연못이 모두 아름답고, 닭 우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한가로우며, 남녀가 모두 이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과 다른 옷을 입고 즐겁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진나라의 전란을 피하여 그곳까지 온 장씨 일가의 사람들을 모델로 쓴 문학작품으로 후세 황하문화권의 여러 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유럽처럼 이런 이상촌이 그 시대와 사회를 개혁하려는 적극적 사회비판적과 사회개혁의 원동력으로써 이상도시를 계획 실현해 보려는 데 반하여 동양의 것은 은둔적이었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의 이상촌운동을 소개하려고 한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의 이상촌운동에 대하여 그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제한된 몇몇 사례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 4. 한국 이상촌의 맥

### 4.1. 한국의 이상촌

한국인들이 구상한 이상촌들은 중국의 도교적 성향에 영향을 받아 환상적이고 자연적이며 비현실적인 측면이 이었다. 그러나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한국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시련과 갈등을 겪게 되고, 대외적으로는 계속되는 외세의 침략으로 인하여 편히 쉴 날이 없었으며, 대내적으로는 철저한 신분계급사회가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감소시켜 조선조의 사회적 갈등들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다. 마지막에는 나라를 강탈당하는 고난을 겪었다. 한국의 이상촌운동은 이러한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려는 사회운동으로 발전하였으며, 또 국권회복(國權回復)의 수단이라는

독특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한국 초기의 이상촌의 사례를 보면 ①도연명이 쓴 도화원기(桃花源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경상남도 울산 도화산(桃花山)에 무능도 원설화가 있고, ②상주의 오복동전설(五福洞傳說)과 ③고려 고종 때에 이인로(李仁老)가 쓴(1260년) 파한집(破閑集)에 지리산의 청학동전설(淸鶴洞傳說)이 있다.(울산문화원 편,蔚山地名史) 그리고 조선조 초기 ④산수화의 대가 안견(安堅)이 그린 몽유도원도(夢遊桃園圖)는 세종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安平大君)의 부탁을 받아 세종 29년(1447)에 그린 그림인데 그 내용은 무능도원(武陵桃源)이었다. 다음은 초기 이상촌 이후의 이상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4.2. 홍길동전의 울도국

홍길동전(洪吉童傳)의 작가 허균은 그의 소설 속에서 울도국(栗島國)이란 이상촌을 그리고 있다(림영철, 2009). 이 소설은 도연명의 ‘도화원기’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강력한 사회비판과 저항을 그리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기반 위에 울도국이란 이상촌을 구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와 유사한 점이 있다.

### 4.2.1. 허균

허균(許筠)은 1569년, 조선 인조 2년 강원도 명주에서 태어났다. 그의 스승 이 달은 어머니가 천출이라서 벼슬길에 나가지 못하고 업신여김을 당했던 불우한 사람이었다. 허균은 그의 스승으로부터 당시 사회의 잘못된 제도와 불의한 사회에 대하여 자세히 배우게 되었고, 이는 사회개혁 소설인 ‘홍길동전’을 통해 나타난다. 그는 인간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 사상을 키우면서 당시 사회제도의 모순을 과감하게 비판하였다. 그가 명나

라를 왕래하면서 천주교 기도문을 가져올 만큼 기독교를 이해하였고, 좌파적인 양명학(陽明學)과 불교의 중생제도를 수용하여 급진적인 개혁사상을 갖게 되었다. 그의 이러한 사회비평의 높은 안목은 많은 사회 비판의 글을 쓰는 등 다분히 비판적이고 저항적이었던 문인이었다. 그러나 허균은 광해군의 폭정에 항거하기 위하여 반란을 꾀하다가 발각되어 1618년 참형을 당하게 되었다.

#### 4.2.2. 홍길동전

그가 소설을 쓸 때는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나라는 초토화 되었고, 이어진 광해군의 폭정은 사회를 대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었던 때였다. 홍길동전은 이런 사회를 비판하고 나아가 개혁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구상하였다.

우리나라 소설 속에 나타난 민중의 영웅은 장길산, 임꺽정과 함께 홍길동이다. 그중 독특하게 홍길동은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실존했던 인물이었다는 설도 있고, 홍길동이 이상국을 건설했다는 울도국 역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열도 중 하나인 궁미도에 세운 유구국(流球國)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홍길동전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면 ①홍길동(洪吉童)은 조선조 세종 때 서울에서 사는 흥판서의와 그 여종 사이에서 태어나 천출의 한을 품게 되었다. 그 아버지는 홍길동이 비범하여 장차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여 자객을 시켜 죽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그 이유로 길동은 가출하게 된다. ②그는 도적패의 두목이 되어 의적으로 만든 뒤에 그 이름을 활빈당(活貧黨)이라 불렀다. 활빈당은 권세가들이 가진 불의한 재물을 탈취하여 가난한 백성에게 나누어 주는 의적이었다. 그 후 길동은 고국을 떠나 제도라는 섬에 가서 살게 된다. 길동은 주변의 울도국을 정복하고, 그 나라의 왕이 되어 선정을 베푼다.

### 4.2.3. 율도국

허균이 구상한 이상촌 율도국은 반상(班常)의 제도나 서열(庶孽)의 제도가 없고, 빈부의 격차가 없는 등, 평등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였다. “왕이 나라를 다스린지 3년이 되었는데 산에는 도둑이 없고, 길에 흘린 물건은 줍지 않았다”고 한다. 즉 그 곳에는 땅이 기름지고 오곡이 풍성하며 정치를 바르게 하여 도적이 없고 풍속이 아름다웠다. 이런 율도국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처럼 그 이상사회의 구성이 자세하게 계획되어 있지는 않지만, 단순한 무능도원의 수준보다는 발전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즉 소설의 형태가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모순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과 이에 대한 저항이 묘사되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이상사회의 제시라는 2중적 구도로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이상사회의 위치가 현세와 격리된 섬이라는 것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

## 4.3. 허생전의 공도

허생전(許生傳)은 조선 후기 실학자인 박지원(朴趾源)이 쓴 단편 한문 소설, 열하일기(熱河日記) 속에 들어 있는 『옥갑야화(玉匣夜話)』에 수록되어 있다. (림영철, 2009) 이것은 작가가 중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옥갑’에 들러 여러 비장(裨將)들과 나눈 이야기를 적은 것이라 하는데 실은 당시 사대부들의 비현실적인 사고와 허위의식,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었다. 이 소설의 내용은 변승업이 큰 도매시장의 도매상인이 매점매석 등 상거래와 관련된 부당한 처부 행태와 관료와 집권층의 무능을 빗대어 풍자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 4.3.1. 연암 박지원

연암(巖岩) 박지원(朴趾源)은 조선 정조 때의 실학자로서 벼슬하지 않

왔고, 1780년 청나라 열하에 가서 그곳에서 사는 중국학자와 교제하며 그들의 생활과 생산기술을 자세히 보고 돌아오면서 그가 보고 들은 것을 기행문으로 쓴 것이다. 청나라에서 배운 새로운 농사법과 세계 여러 나라의 각종 소식과 편리한 기계들 그리고 그들의 생활과 풍습을 소개하고 조선의 문물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할 것을 주장하여 당시 사상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1799년(정조 23년)에는 백성들의 토지소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농지 개혁을 주장하는 글을 썼으며, 백성과 나라에 유익하다면 비록 상대가 적일지라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실학자로서 사회개혁사상을 과감하게 피력하였다.

#### 4.3.2. 주인공 허 생

주인공 허 생(許生)은 가난 때문에 부득이 공부를 중단하고 돈을 빌려 안성의 과일과 제주도 말총을 사서 고가로 팔아 돈을 많이 벌었다. 허 생은 늙은 사공으로부터 ‘바다 밖에 사람이 살만한 빈 섬(空島)’이 있다는 말을 듣고 배고픈 수천의 도둑들을 설득하여 함께 들어가 농사를 잘 지어 그 농산물을 일본에 팔아 더 부자가 되었다. 그는 해외로 통상이 잘 안 되고 국내에는 수레(교통 도구)를 이용할 줄 모르니 그 고을 물건을 쉽게 매점매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방법을 당국자들이 쓴다면 나라를 병들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한다.

#### 4.3.3. 공도 이상촌의 특수한 점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와 유사한 한국의 율도국과 공도 등, 3개의 이상촌은 그 이전에 구상했던 이상촌과는 달리 환상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비교적 사실적이고 현세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특성을 자세히 보면 첫째, 서양의 유토피아가 그 주인공이 가상의 인물을 만든데 반하여 홍길동전의 율도국이나 허생전의 공도는 실제 인물



을 모델로 하였다. 둘째, 유토피아나 율도국에 비하여 공도는 그 이상촌이 설립되는 과정이나 성공하는 방법이 비교적 현실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사실적으로 인용하였다는 점이 다르다. 셋째, 위의 3개 이상촌은 그 구성원이 모두 그 사회의 지배계층으로부터 수탈을 당하여 힘들게 살아가는 하류계층의 사람들이다. 특별히 한국의 경우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가렴주구(苛斂誅求)로 인하여 가난하게 되었고, 배고파서 도적이 된 서민들이 지도자를 잘 만나서 이상촌을 건설하는 주역들이 된 것이다. 넷째, 유토피아에서는 이상촌 구성원들에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체제가 구상되었지만 한국의 이상촌은 사유재산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다섯째, 허생전에 이르러서는 여성의 역할이 증대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조선조 사회의 철저한 남존여비사상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극도로 제한하였다. 더욱이 양반가의 여자에게는 더 심하여 겨우 길쌈과 누에치기 또는 가내수공업 정도에 한정되었다. 그런데 허 생의 아내는 남편에게 돈을 벌도록 하기 위하여 집에서 내물았고, 무능한 사대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 5. 한국 개화기의 이상촌운동

### 5.1. 사회적 배경

구한말 격동기의 사회적 배경을 밝히는 것은 이때의 이상촌운동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그 배경 속에 이상촌운동을 전개한 사람들의 사상과 이념, 그리고 그 형태와 방법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구한말 개화기는 국운이 풍전등화같은 시기였다. 그리고 이어서 나라를 왜구에게 강탈당하여 5000년 역사의 단절을 경험 하는 우리 민족사에 있

어서 가장 치욕적인 시기이었으므로 우리 민족의 국권회복을 위한 노력 역시 다양하고 격렬할 수밖에 없었다. 식민지를 구하려고 다니던 구미 여러 나라들의 배가 동양을 위협하던 때, 한국은 이들을 물리치고 쇄국정치를 하였으나 이웃 나라 일본에 의하여 국망의 위협을 당하자 한국의 이상촌운동은 단순한 농촌운동, 농민운동에서 벗어나 국권의 보존이라는 대의를 들고 반외세와 자강, 자주를 외치며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으로 발전하였다.(임영철, 1994). 예를 들면 좌옹 윤치호, 도산 안창호, 남강 이승훈, 일가 김용기 등과 최용신과 바롬 고헥경 등은 기독교인들로 개회사상을 가진 이상촌운동가들이었고, 천도교나 조선농민사도 유사한 이상촌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YMCA를 위시하여 동아일보, 조선일보, 대한매일신보, 중앙일보 등의 언론기관들이 있었다. 그들은 굳건한 신앙을 정신적 기초로 하였고 그 위에 애국심으로 무장하였으며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을 만들고, 생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부지런히 일하고, 근검절약하여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운동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단순하게 경제적 인 것 외에 독립운동의 기지가 되어 국권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협동적인 공동체마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 5.2. 개화기 한국 이상촌의 뿌리 : 신민회

### 5.2.1. 창립

1890년대 조선사회는 국제사회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겨우 소화사상에 사로잡혀 쇄국정책의 근시안적인 정치를 크게 염려하고 있었던 당시의 선각자들이 이 국가적 난관을 타개하기 위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민주화를 통한 구국운동을 전개하는 독립협회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신용하,1987)

1900년이 지나면서 백성은 도탄에 빠져 헤매고 있었고 이미 나라의 외교권이 일제에 넘어 간지 2년이 지난 1907년, 기독교의 대 각성운동, 회개운동이 불타던 해에 한국의 지도자들은 신민회(新民會)라 하는 국권회복의 비밀결사 단체를 조직하게 되었다. 이 단체의 창건위원으로는 창립의 구상과 발기를 담당한 안창호를 위시하여 양기탁, 전덕기, 이동휘, 이동녕, 이 갑, 유동열 등이었고, 배후의 중심적인 인물로는 노백린, 이승훈, 안태국, 최공욱, 이시영, 이회영, 이상재, 윤치호, 이 강, 조성환, 김 구, 신채호, 박은식, 임치정, 이종호, 주진수 등이 있었다. 이들은 첫째로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했던 대한매일신보의 지도자들과 무관출신 지사들, 서울 상동교회(尙洞教會)의 지도자와 서울 및 서북지방의 신흥 시민세력, 그리고 미주에서 활동했던 독립협회(共立協會)의 세력이었다(신용하, 1990). 이들은 김 구 등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독립협회의 청년회 회원이었으며, 기독교인들이었다. 그들은 실력을 양성하고 그 힘으로 나라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개화자강파(開化自強派) 인물들이었다. 1910년에 이르러서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신민회의 회원수가 800여명에 이르렀으니 당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지도적 인물이 거의 다 망라되었다고 볼 수 있다.

### 5.2.2. 목적과 목표

신민회의 최종 설립목적은 국권을 회복하여 나라의 정치체제를 공화정체(共和政體)로 하는 독립 국가를 세우는데 있었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력을 양성'해야 했었다. 즉 '새로운 국민'에 의한 민력양성에 두었다. 그들의 구체적인 전략을 보면 만주 일대를 활동무대로 할 것과, 모금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그곳에 신한민촌(新韓民村)을 건설하고 토지를 개간하여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며, 그곳에 학교(무관학교 포함)를 세워 교육구국운동을 전개하고, 교회, 문화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①농민 야학을 개설하여 문해교육과 농업기술,

생활개선, 공동체의식 그리고 민족의식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②농사법을 개량하며, ③황무지를 개척하여 농경지를 확장하고, ④의식주 등을 중심으로 생활을 개선하였고, ⑤농민들의 협동조합을 세우고, ⑥경작과 판매를 공동으로 하여 그 소득을 공동으로 분배하고, ⑦특별히 그 이상층으로 하여금 독립운동의 기지로서 역할을 다하려고 하는 등 국권회복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신민회의 계획은 좋은 지침이 되어 이상농촌운동에로의 발전모델이 되었다. 개화기 한국의 경제구조는 전체 인구의 80%이상이 농민이었으며 국가 총생산량의 2/3 이상이 농산물이었다. 따라서 국가 발전력의 원천도 농촌과 농민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었으므로 이상농촌운동 역시 농촌을 중심으로 하여 세워지게 되었다. 잘 사는 농촌이 지반이 되어 그 위에 학교와 교회를 세우고 공장과 농장도 세우며 무관학교도 세우는 등 종합적인 독립운동의 기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이상농촌운동의 구상이었다. 농촌이상농촌운동은 주로 농민계몽과 농촌사회 개발 사업으로 대별된다. 농민계몽은 농민들의 의식을 계발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협동단결하게 하고, 새로운 농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며, 나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었다.

이상농촌마을의 구도는 대개 ①농토가 마을별로 나누어져 있고 ②마을 한편에 학교(무관학교 포함)가 있고, ③그 학교에 필요한 실습지로 농장을 두었으며, ④실업교육을 위한 공장이 세워지고, ⑤다른 한편에는 교회를 세웠으며, ⑥그 주변에는 주택과 상점, 사무실을 두는 등, 비교적 마을 구도가 유럽의 이상촌에서 보여주는 이상적인 도시계획에 접근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 5.3. 이상농촌 설립 사례

신민회가 직접 세운 사리원 모범촌이나 만주 이주자들로 세워진 신한민촌 외에도 신민회의 정신과 사업계획에 따라서 직접 세워진 이상촌은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었다. 1907년 이상촌운동이 시작된 이후, 1920년대 활발한 이상촌운동시대를 거쳐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발전된 이상촌이 생기지만 일제의 집요한 탄압으로 그 성공사례는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이상촌운동은 한민족 생존의 대 동맥을 이어가는 사회운동으로서 한국 역사를 꾸며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5.3.1. 사리원 모범촌

사리원 모범촌에 대한 기록은 신민회가 최초로 이상촌을 설계하여 건설했다는 기록 외에는 아무런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추측하건대 이 모범촌은 일본 침략자들의 탄압으로 인하여 오래 견디지 못하고 곧 무너진 것으로 생각된다.

#### 5.3.2. 신한민촌

1909년 서울의 양기탁(梁基鐸 신민회장)의 집에서는 신민회 전국 간부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에서 결의한 것은 나라 밖에 적당한 독립군 기지를 마련하여 독립군을 양성하기로 하는 뜻을 모았다. 그리고 1910년 신민회 긴급 간부회의는 '독립전쟁 전략'을 채택하고 무관학교 설립과 독립운동 기지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먼저 독립군 기지는 일제의 통치력이 미치지 않는 만주의 서북간도와 시베리아 연해주 지방으로 결정하였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민족지도자들이 망명하여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신민회의 결정 이후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한국인 교민이 수십만이나 거주하고 있었다. 또한 그곳에는 가지고 있는 토지가 많고 개간되지 않은 황

무지가 넓어서 이주하는데 적당한 땅이었으므로 신한민촌(新韓民村)을 건설하는데 적합하였다. 소요되는 자금의 모금은 평안남도의 안태국, 평안북도는 이승훈, 황해도는 김 구, 강원도는 주진수, 경기도는 양기탁이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들은 먼저 조사단을 파견하여 조사하게 하였는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지역은 만주의 유하현 삼원보(三源堡)지역으로 그 곳에 이상촌의 자리를 확정하였다. 지역이 정해지자 많은 동지들이 이주하였고, 그들은 먼저 농업생산을 지도할 경학사(耕學社)라 하는 자치단체를 설립하고 이상룡을 사장으로 선출하였다. 경학사는 농사를 지도할 뿐 아니라 황무지를 개간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항일군이 될 인재를 양성하도록 했다. 또 '신흥강습소(新興講習所)' 학교와 교회, 기타 문화시설을 세우는 한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무관학교를 설립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였다. 신흥강습소는 후에 신흥무관학교로 변경되었다. 신민회의 이런 실천 행동이 있기 이전에 이미 만주로 이주한 한국인 기독교인들이 이상촌을 건설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뒤에 설명할 김약연의 명동마을이다.

### 5.3.3. 윤치호와 이상촌운동

신민회의 뿌리는 독립협회이고 독립협회는 배재학당의 서재필과 협성회였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기독교 선교사가 있었기에 이상촌운동은 기독교운동처럼 전개되었다. 기독교인 윤치호는 신민회에서 논의되었던 이상촌운동을 즉시 실행에 옮겨 첫 번째로 이상촌운동을 실시한 인물이 되었다. 그는 그의 한영서원 주변에 약 60만평의 토지를 매입하고 선교본부와 학교, 교회와 병원을 건립하고, 100여 채의 주택과 도로, 그리고 농장으로는 과수원과 목장, 제조공장이 갖추어진 종합적인 이상촌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는 먼저 토지를 확보하고 선교관을 건축하였다. 사업이 시행되자 선

교사들과 송도(松都) 시민들이 물심양면으로 참여하여 공사가 잘 진척되었다. 그러나 국내 정치의 불안정과 일본 침략자들의 방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다가 끝내는 자금 부족으로 중단하고 말았다. 비록 그 사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중단되었지만 그것은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었다.

#### 5.3.4. 규암 김약연의 명동마을

##### 5.3.4.1. 만주 이민

한국에는 심한 재해와 사회적 혼란으로 많은 농민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만주와 러시아로 이주하였다. 1899년부터 시작하여 1904년에는 연변지역의 이주자가 50,000여명, 망국의 한을 품고 조국을 떠난 사람들과 일제가 강제로 이민시킨 사람을 합하여 1944에는 동북 3성에만도 166만 명에 육박하였고, 산해관에도 8만여명이 이주하여 살았다. 이들 이민자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고, 집단적으로 이주하여 기독교 공동복지촌을 건설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마을 이름을 구세동(救世洞)이니 영생동(永生洞) 등으로 이름을 붙여 기독교의 이상촌임을 나타내고 있다. 특별히 청교도적인 기풍이 강했던 장노교파의 교인들이 많았고, 그 대표적인 이상촌은 김약연이 세운 '명동(明東)마을'이었다.

##### 5.3.4.2. 규암 김약연

규암(圭巖) 김약연(金躍淵)은 31세가 되던 1899년에는 동지 4명의 가족과 더불어 10여 가구를 이끌고 두만강을 건너서 간도(間島) 명동촌(明東村)에 정착하였다. 그곳에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는 사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잘 사는 이상촌을 건설하여 그 힘으로 국권회복을 담당할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 5.3.4.3. 명동학교 설립

그는 1908년 명동학교(明東學校)를 설립하여 교육사업을 시작하였다. 명동학교는 수준이 높았던 국어과목 외에도 역사와 지리, 수학, 영어 등을 포함하여 근대화된 교과목 24개를 개설하였다. 애국지사들로 구성된 교사는 역사학자 황의돈을 위시하여 정재면, 박태환, 장지영, 김 철, 김치관, 김홍일 등 여러 지사들이 모여 가르쳤다. 그는 정 목사를 통하여 근대적인 과학과 문화를 흡수할 수 있었고,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만이 나라를 다시 찾는 길'이라 믿게 되어 기독교를 믿고 뒤에 목사가 되었다.

### 5.3.5. 남강 이승훈의 이상촌운동

#### 5.3.5.1. 동기

호를 남강(南岡)이라 한 이승훈(李昇薰)은, 1864년에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나 보부상으로 재물을 모았으나 1905년 '을사조약'이라는 늑약(勒約)이 체결되자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정주의 용동(龍洞)으로 이사하여 여주이씨 양반촌을 세우려했다가 1907년 44세에 이르렀을 때 헤이그 밀사사건과 고종의 양위 소식을 듣고 심한 충격을 받았다. 또한 안창호의 연설에 감명 받아 이상촌을 건설을 통해 국권회복의 공생활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 5.3.5.2. 동회(洞會)와 자면회(自勉會)의 조직(남강문화재단 편, 1988)

교회를 세워 기독교적인 이상촌을 건설하려했으며, 성인교육과 강명의숙 및 오산학교를 세워 민족 지도자를 양성하였다. 자면회는 남녀 각 1사람씩 간사를 두어 연락책임을 맡기고, 한 주일에 한 번씩 간부들이 모여 마을 일을 의논하고 그 마을회의에서 결정된 일은 전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실행하도록 했다. 즉, 그들은 자치적으로 그들의 규칙을 정하고 자



발적으로 실천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마을에는 청년회를 두어 그들의 교육과 계몽을 실시하였고, 그들은 마을의 일 외에도 마을의 어려운 가정의 일까지도 공동으로 봉사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다.

### 5.3.5.3. 생활개선

신민회가 세운 '새나라 새 백성운동'의 강령에 따라서, 동리 청년들과 함께 마을길과 도랑을 정비하여 깨끗하게 하였고, 우물을 공동으로 청소할 것과 변소에 회를 뿌리는 일, 화단을 가꾸는 일, 부역을 정돈하고, 침구를 내어 말리며 옷을 깨끗이 빨아 입는 것 등 위생적인 생활개선을 실행에 옮겼다. 청년들은 남강을 따라 머리를 짧게 단발(短髮)하였고, 단정한 옷차림과 금주금연하고 도박은 금하였다. 그리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별 볼 일 없이 마을을 어슬렁거리며 다니지 않도록 했다. 걸음은 품격을 갖추어 단정하게 걸으며, 밭갈이나 추수 같은 큰일은 서로 품을 모아서 공동으로 하게 했다. 저녁에는 한자리에 모여 남강의 가르침을 받아 마을 사람끼리의 분쟁은 자연적으로 없어졌고, 집집마다 베틀과 가마니틀을 설치하고 그 생산한 물건들은 공동으로 판매하고 저축하여 근검절약의 생활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삶의 태도를 바꾸는 생활개선을 실천하였다.

야학에서는 국문을 가르치고, 대한매일신보를 보게 하여 시대의 변화를 가르쳤다. 도산 안창호를 만난 뒤에는 민족운동과 개화주의에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용동에 새로운 이상촌을 건설하는 일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오산학교의 교사였던 이광수는 당시 용동에서의 생활에 대하여 그의 자서전 이광수전집(李光洙全集)에서 기록하기를 자기가 “검사원이 되어 토요일마다 집집마다 순회하면서 방과 부엌과 뒷간과 금침까지도 모두 검사하였다” 했으며, “남자는 매일 집세기 한 켄레, 여자는 끼니때마다 매 식구에 쌀 한 숟가락씩을 모아서 한 달에 한번 동회에 모

이는 날에 회에 바치되, 저마다 제 구좌로 하여 저축해 두었다가 그 돈이 백원이 차면 찾아 갈 수 있고, 그 동안에는 저리로 대부하는 제도를 세웠다. 이 제도에 대하여 처음에는 이론(異論)도 있었으나 결국 그대로 시행하여 불과 반년에 오백원의 자금이 모이게 되었다.”고 했다.

이상과 같은 생활개선운동은 189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국인들로 공립협회(共立協會)를 세웠던 안창호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남강은 처음에는 여주 이씨 문중마을의 동계(洞契)와 같은 성격의 혈연적 공동체를 만들었지만, 이제 민족의식이 자리를 잡으면서부터는 학교와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학교촌, 교우촌을 만들게 되었다. 그것은 민족이나 지역사회와 같은 넓은 의미의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위주로 하여 이상촌을 건설하려는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 5.3.5.4. 제2단계 이상촌

이승훈의 제2단계 이상촌운동은 3.1운동이 지난 뒤 출옥된 1922년 이후에 구상되고 건설되었다. 초기운동이 기독교신앙을 바탕으로 학교교육과 동회의 자치훈련을 실시하여 새로운 농촌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던 용동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이상촌운동이었다고 한다면, 후기의 운동은 용동을 새로운 농촌모델로 제시하면서 그곳에서 배우고 익힌 학생들로 하여금 전국 각처에 나아가 이상촌을 건설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인재를 양성하려고 했다는데 그 특징이 있었다. 따라서 운동의 대상도 민족으로 확대된 대이상촌운동이었다(이교현, 2003).

이런 주장은 당시 오산학교 교장이면서 용동을 이끌었던 조만식이 한 말, 즉 “조선의 이상은 농촌청년 각자가 향촌을 이상향으로 건설하는데 있다”라고 한데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의 목표는 점진적인 독립운동을 통하여 국권을 회복하는데 있었다.

### 5.3.5.5. 농업과 종합적인 교육기관 건설계획

이승훈은 농업기술의 수준을 향상하여 경제력을 튼튼히 하고 독립을 쟁취하려면 이미 세워진 강명의숙의 초등교육에서부터 오산학교의 중등교육을 더욱 육성하고, 장차 세워질 여학교와 농과대학 등 학교를 중심으로 건설된 이상촌을 통해 국권을 회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립대학 설립운동'이나 오산농과대학을 설립하려는 시도는 한국인 우민화정책을 세운 일제가 허락지 않아서 끝내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김형석, 1985).

### 5.3.5.6. 발전된 용동이상촌의 조직과 사업

남강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마을은 이미 크게 발전하여 학교마을, 교회마을, 병원마을, 사택마을과 농장과 산림마을 등으로 나뉘어졌으며 용동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 마을을 다 합하면 7개 마을이 되었다. 각 마을에는 동회(洞會)가 있고, 7개 마을을 묶는 조직으로서는 협동조합을 세워서 동회들을 이끌어 가도록 하였고, 생산과 판매 및 구매(소비)의 조합으로 활동하게 하였으며 품평회도 가졌다. 더욱이 지방에서 공부하러 온 학생의 경제문제는 신용조합(信用組合)에서 해결하여 주었고, 학생과 주민의 생활필수품은 협동조합에서 취급하게 하였다. 교회는 전도와 부흥사 경회를 열었고, 야학은 주민들의 정신과 생활을 지도하여 주었고 학교에서는 강연회와 음악회, 연극회 등을 열어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주었다. 협동조합에 허부 조직으로는 동회(자면회)를 두었는데, 자면회는 동시(洞是)를 제정하고, 농지개량과 협동생산, 협동노동과 소득증대, 생활개선 등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런 일 중에는 미신을 타파하고 예수를 믿도록 전도하는 일과 위생문제와 주택개량을 지도하였으며, 마을 이발소까지 경영하였다. 청년회의 일로는 토산품을 이용하지는 조선물산장려운동에 열심을 다하였고, 금주금연운동, 사치풍조 척결운동, 근검절약 운동, 공동체의식 갖기 운동, 신지식 보급운동, 신문 잡지의 열람과 독서운동, 극빈

자나 환난을 당한 마을 사람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운동,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풍속(風俗)을 개선하며, 저축을 장려하고, 그 외에도 생활을 개선하는 사업 등, 그들은 용동의 이상촌 건설과 발전을 위한 실제적인 주동세력이었다.

자면회가 주도하는 평생교육 조직은 호주회와 주부회, 소년소녀회, 청년회 등이 있어서 계몽 강연과 주야간의 강습회를 학교와 교회의 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청년회는 회원을 18세에서 45세까지의 마을 사람들로 자면회의 전위 조직으로서 그 임무를 다하였다(김기진, 1920. 김기석, 1964. 이기백, 1973).

협동조합의 회원은 주민과 교사, 학생들이었고, 학교와 마을, 교회의 일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에 모든 문제에 관여한 최고기관이었다.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공동 생산과 산업의 계획, 공동노동, 교육과 소비조합의 문제, 특별히 식민통치하에서 계속적으로 닦쳐오는 무수한 탄압과 대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치적 결단이 이들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하였다.

그가 선택한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독립운동 방법은 '교육을 통한 구국'이었으나 만년에 이르러서는 '민족 공동체운동'에 더 비중을 두었다.

상인으로 성장하여 거부가 됐던 이승훈은 조국과 민족을 알게 되고 애국 계몽운동에 투신하게 된 것은 신민회의 가르침 때문이었다. 그는 독립운동의 방법으로 교육과 산업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고 깨달은 대로 그렇게 살아 왔다. 그러나 동아일보를 경영해 보고 연정회와 신간회 활동 등 민족 독립운동에 힘을 기울여 왔으나 그곳에서는 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다행히 그가 새롭게 나아갈 길을 찾게 되었는데,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통한 구국의 길, 곧 이상촌운동이었다. 그의 이상촌은 교회를 통하여 동포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학교에서 무지를 깨우치며, 농업과 산업으로 나라를 근대화하는 이상촌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 5.3.6. 그 외의 많은 이상촌운동

1920년대 중반 장로회 총회 농촌부와 YMCA의 농촌사업부는 덴마크의 삼애운동과 같은 이상촌운동을 하였는데 이는 기독교 사회주의 협동운동이었다.

안창호의 이상촌운동은 그의 개화자강사상에 따라 1907년新民회를 조직하고 이상촌을 설립하여 독립운동의 기지로 삼고, 교육과 농업 및 산업을 농민호조사라 하는 협동조합을 통하여 진흥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큰 뜻을 펼치지 못하고 일을 추진하는 중에 일제에 의해 사망했다.(도산사상연구회, 1993 : 주요한, 1950 : 이광수, 1962: 김구, 1947 : 박만규, 1993 : 신용한, 1990 : 강재연, 1985).

천도교의 조선농민사(朝鮮農民社)는 기존의 이상촌과는 달리 구국이나 독립운동의 목적은 없고 지주(地主)에 대항하여 농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농민운동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당시 일제의 탄압이 심하여 구국운동을 표면에 나타내지 못한 것이라 추측된다.

그 외에도 유림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김창숙(金昌淑 1879-1962)의 이상촌과 이 달의 이상촌, 안희제의 발해농장 등이 있다.

## 6. 봉안이상촌

### 6.1. 사회적 배경

1930년대 일제는 만주침략을 위해 한국의 식민통치를 강화하여 한국과 해외의 이상촌운동까지도 강력하게 통제하여 실제적으로는 거의 사라질 무렵, 1935년 일가(一家) 김용기(金容基)가 그의 고향 봉안에 이상촌을

세웠다. 그런데 많은 이상촌들은 각각 목적과 사업이 조금씩 다른데 김용기의 봉안이상촌은 윤치호나 이승훈, 안창호가 세웠던 이상촌이 그랬던 것처럼 개화자강적 국권회복과 농촌운동으로 실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 당시의 사회상황은 3.1운동 이후 일제는 ‘문화정책’이라는 유화정책으로 겉으로는 완화된것 처럼 보이나 내용적으로는 더욱더 교묘한 탄압이 계속되었다.

1920년에는 김좌진의 청산리대첩과 홍범도의 봉오동전투의 대승, 1926년에 시작한 6.10만세운동과 1929년 11월에는 광주학생운동, 많은 노동운동의 전개와 신문사 창건, 독립운동 단체들의 결성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산미(産米)증식계획 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 토지개량사업을 통한 일제의 착취, 만주침략 전쟁과 만주국의 수립, 1937년에는 중일전쟁, 윤봉길 의사의 의거와 소작쟁의 그리고 기독교 농촌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상농촌운동은 장로교단과 감리교단, YMCA와 YWCA 등의 단체에서 농촌부를 해산하면서 1937년을 고비로 하여 점차 쇠퇴하였다. 김용기는 1932년에 양주에 독립운동과 농촌운동의 기지로 봉안이상촌을 건설하였다.

## 6.2. 봉안이상촌의 건설

### 6.2.1. 건설의 준비

“농군이 되라”는 아버지의 권고를 받은 그는 안창호와 이승훈 등의 이상촌을 본받아 농촌운동과 독립운동을 함께하는 이상촌을 건설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한국의 인구 중 80%이상이 농민이었으므로 이들이 먼저 개화되어야 한국이 빨리 독립할 수 있다는 것과 모범적인 농촌, 농민이 되어 배고픈 이 나라 국민에게 먹을 것을 쥐야 한다는 철학이 있었다.

어렵게 마련한 자금으로 농사 적지가 될 황무지를 잘 골라 사들여서

이를 개간하고, 그 외 돈은 농기구와 묘목, 기타 영농자금으로 썼다. 그는 부부가 합하여 황무지 개간지에 고구마 농사를 지어 크게 성공하였다. 마을에서 “대단한 농사꾼”으로 알려지자 그는 함께 이상촌을 세울 동지들이 나타나 모두 10가정(十家村)을 이루었다.

### 6.2.2. 모델이 되었을 이상촌의 모형

인간의 모든 사고와 행동은 그가 겪어 온 어린 시절의 정상경험에서 나온다. 일가에게 있어서는 일제의 무자비한 학대와 가난, 병마에 시달리던 허약한 마을 사람들 그러면서도 3.1운동 때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그의 아버지와 많은 이웃 마을 사람들의 함성이 정상경험이 되어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상촌운동가들은 대개 두 가지 모순된 사고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는 유교와 주자학이 만들어 낸 허례허식이었고 그것은 실용주의와 합리주의로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적인 사회건설인데 그것은 덴마크처럼 농민들의 협동공동체가 만든 아름다운 복지국가, 성경에 나오는 <에덴동산>이었다.(김용기, 1980) 그는 그룬트비히(Grundvig)의 사상과 국민고등학교의 교육, 협동조합운동 등 많은 것들을 그의 사상과 계획에 반영시켰다. 즉 一家는 덴마크 이상촌운동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 외에도 남강 이승훈이 세운 오산학교와 자면회처럼 한국 선배들의 이상촌운동은 실제적으로 큰 본이 되었다.

### 6.2.3. 봉안이상촌의 설계

봉안이상촌의 설립목적은 당연히 조국의 독립, 즉 국권의 회복이었고, 그 목표는 협동적인 농민공동체(이상촌)를 조성함으로써 애국심으로 하나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며, 문화적으로도 건강하고 아름답고 튼튼한 마을을 만들어 독립운동의 전투기지로써 적합한 마을을 만들려는 것이었다. 봉안이상촌의 십가촌 사람들은 다 같은 이념과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하였다. 자신의 사업에 대하여 반성, 평가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사업의 진행은 지역사회개발 원리에 맞게 접근하였다. 즉 먼저 주택을 마련하고, 농경지를 분배하고, 생활개선을 하며 농산물을 공동으로 판매하는 것 등이었다.

#### 6.2.4. 성장과 한계

10개 회원 가정이 모여 설립된 봉안이상촌은 날로 성장하여 회원 수와 농경지가 늘어났다. 주로 황무지를 개간하여 과수원을 확대하였으며 선진한 상업농경영의 형태를 띠었다. 그러나 이런 경영과 회원의 모집은 회원들의 의식을 바꾸고 애국심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일제 경찰의 위협에 쉽게 무너졌다. 따라서 회원모집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 6.2.5. 봉안이상촌의 사업

##### 6.2.5.1. 생활개선 사업(김용기, 1980)

① 주택개량 사업 : 김용기는 철저한 기독교인이면서 개화파인 그는 ‘점진적’ 개량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마을의 전체 구도는 마을 중앙에 교회당을 세우고, 주변에 주택을 세우며, 가옥의 구조는 검소하면서도 실용적이고 채광과 환기가 잘되는 위생적이고 편리한 집을 지었다. 집 주위에는 담장을 두르지 않는 반면에 꽃나무나 무궁화를 심어 은연중에 민족혼을 느끼게 하였다. 집과 집 사이에는 화단을 조성하여 마을은 온통 꽃으로 가득하게 하였다. 지붕은 개와를 덮도록 하였고, 흙벽돌을 찍어 집을 지었다.

② 식생활 개선사업 : 황무지 개간을 위한 강한 체력을 위해 맛보다는 영양중심 식생활이었고, 금주금연 하였으며 산양을 키워 젖을 먹고, 고구마, 옥수수, 조, 콩 등 잡곡으로 혼식을 장려하였다.



③ 의생활 개선 : 봉안이상촌에서는 흰 옷은 예복으로만 입었고 유색 옷을 입었다. 그리고 일하기 편리한 검소하고 실용적인 옷을 입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허례허식을 버리고 간소한 결혼식과 장례식 등을 권장하였다.

#### 6.2.5.2. 봉안이상촌의 농사개량

① 비료는 축산의 부산물로 만든 퇴비를 썼고, 연료문제는 부역을 개량하여 열효율을 높이려 했으며, 집을 지을 때는 보온이 잘되도록 개량하여 연료를 최소한도로 절약하였다.

#### ② 다각농업(多角農業)

김용기는 미곡중시의 영농에서 수익이 높은 가축과 밭농사 중심으로 전환했다. 과수작물로는 배와 복숭아와 자생과일로 밤, 감, 앵두, 잣, 자두, 호두, 살구 그리고 고구마를 많이 심었고, 곡식으로는 쌀과 보리, 밀, 콩, 팥, 조, 수수, 기장, 옥수수, 감자 등을 재배하였으며 이 중에서 옥수수와 감자를 많이 재배하였다.

③ 축산은 양계와 산양, 젖소, 양봉 등이었다.

#### 6.2.5.3. 보건의료와 오락 및 교육

① 청결운동과 진료 : 가정과 마을의 청소, 기생충, 영양부족, 비위생적인 생활, 풍토병과 빈곤 등이 개선의 대상이 되었으며, 마을 오락도 건전한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② 이상촌운동에서 가장 중시하는 사업은 교육구국이었다. 봉안에서는 학교교육 외에 유치원(탁아소와 함께)과 소학교, 야학(한글, 한문, 지리, 산수, 사회, 주산, 체조, 농작법:농업 기술과 황무지 개척법)이 활발하였으며, 강습회, 가정 요리, 강연회, 라디오, 영화연구회,

좌담회, 야구회, 품평회, 도서관, 영화 등 다양하게 개설되었다.

#### 6.2.5.4. 협동운동

이승훈의 이상촌이 그랬던 것처럼 봉안에서도 협동조합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것은 서구의 이상촌들이 성공한 동력이기도 하지만 한국 역시 과거 계와 향약이 있어서 그 문화적 기초가 되어왔다. 봉안이상촌의 협동조합은 김용기가 홍병선이 쓴 협동조합에 관한 글을 읽고서부터 ‘죽었던 나라가 다시 살아난 덴마크와 같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자면 덴마크의 그룬트비히 처럼 우리에게도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있어야 하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여 청년들이 일어나 뭉쳐야 하며, 그들은 협동운동을 통하여 단결해야 하고, 그렇게 하여 새로운 농도(農道)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이었다. 그는 생산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판매협동조합 등을 만들었다.

#### 6.2.5.5. 독립운동

봉안이상촌이 이상촌이기 때문에 국권회복을 위한 독립운동은 당연하였다. 봉안이상촌은 독립운동의 기지로서 역할 외에 창씨개명 반대, 공출(供出) 반대운동, 독립투사의 보호와 연락 업무, 해방 전 농민동맹의 결성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해방 후 봉안이상촌은 “먹을 주자”라는 기치를 들고 농민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5번에 걸쳐서 황무지를 개간하였고 3번에 걸쳐 이상촌을 건설하였다. 가나안농군학교는 새마을운동의 본(모텔)이 되어 조국근대화를 이루는데 일조하게 되었다.

## 7. 결 론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는 분쟁과, 살상, 파괴와 착취를 거듭하며 세상을 위태롭고 불안정하게 만들어가는 기록이 많다.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이 지혜가 늘어나고 윤리가 정립되면서 어려운 세상을 인간의 노력을 통해 이상적 사회로 완성해 보려는 꿈을 꾸기 시작하였다.

서양에서는 희랍에서 이상국가가 구상되었고 이어서 영국의 토마스 무어가 1516년 『유토피아』를 발표함으로써 상당히 구체화되었으며 로버트 오언은 단순한 구상에서 나아가 그의 사업장에서 그의 이상촌을 실현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이상촌운동은 유럽과 세계 각국에 다양한 형태로 번져나갔다. 이와 동시에 중국에서도 기원전 6세기경부터 노자의 소국과민(小國寡民)이라하는 이상국가 건설에 이어서 4세기경에는 도연명의 무릉도원이란 이상사회가 그려져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허균이 쓴 소설 홍길동전에 나오는 울도국(栗島國)과 박지원의 허생전에 나오는 공도(空島)는 상당히 구체화된 이상촌이 소설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유럽사회는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농업이 주도하는 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동되어 식민지를 구하던 그들의 침략은 동양의 위기로 다가왔다. 한국에서는 구한말 개화기를 전후하여 국권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상촌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는데, 그 조직은 신문회가 주도하여 한국과 만주, 미주 등 널리 확산되었다.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농촌운동 중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은 개화기 한국과 여러 나라의 이상촌운동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세기 전부터 이미 농촌을 이상적으로 개발하여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이를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계획하여 실천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이상촌운동들 중 한국의 개화기

이상촌운동은 다른 나라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다는 것이다. 인구의 80% 이상이 농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교육시키는 일은 중요한 일이었다. 교육의 내용은 의식주를 개선, 농업기술 전수, 건강 위생교육 등을 포함한 농민교육이었고 계(契)사상을 이어받은 협동적인 농촌공동체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다. 여기에 다른 나라와 다른 특징으로 일제의 탄압과 착취에 저항하고, 상부상조하는 독립운동의 기지를 구축하여 한국의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농민운동은 해방후에도 민족의 대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되었다. 한국 농민에게 본이 되어 희망을 주었던 김용기의 봉안이상촌을 계승하여 세워진 가나안농군학교가 새마을운동의 정신적 바탕을 이루어 조국을 근대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의 이상촌운동은 단지 농촌지도나 개발에 국한되어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근간이 되는 사상이요 운동이었다. 우리 민족의 값진 유산이었고,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정신적 바탕이고 자산이다. 한국인의 정신과 삶을 지배하는 이러한 의식과 가치관은 우리의 뿌리를 이루고 있으며 그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생활화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권 립. (1994). 소래 김중건 선생의 농사관에 대하여. *개혁의 이론과 독립운동*. 순국선열 소래 김중건선생 기념사업회.
- 김 구. (1947). *김구 일지*. 서울: 국토원.
- 김기석. (2005). *남강 이승훈*. 서울: 한국학술정보.
- 김기진. (1920). 농촌개선에 관한 도안. *개벽*(6). 35-42.
- 김용기. (1966). *가나안을 가는 길*. 서울: 창조사.
- \_\_\_\_\_. (1970). *이렇게 살 때가 아닌가*. 서울: 창조사.
- \_\_\_\_\_. (1987). *나의 한길 60년*. 서울: 규장.
- \_\_\_\_\_. (1998). *가나안으로 가는 길*. 서울: 규장.
- 김준현. (1985). *한국의 근대 이상*. 서울: 한길사.
- 김지용 편저. (2003). *소래 김중건 선생 전기*. 서울: 명문당.
- 김현원. (1992). 이스라엘 기부츠의 공동체 의식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도산사상연구회. (1993). *도산안창호집* (상·중·하). 서울: 범양사.
- 림영철. (1994). *역사로 본 한국민족정신교육*. 서울: 가나안출판사.
- \_\_\_\_\_. (2009). *일가 김용기와 가나안이상촌*. 서울: 가나안출판사.
- 망원한국사연구실. (1996). *한국근대민중운동사*. 서울: 돌베개.
- 민영환. (1958). *민중정공 유고*.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박 환. (1991). *만주 한인민족운동사연구*. 서울: 일조각.
- 박만규. (1993). *개혁운동과 도산의 사회사상*. 서울: 연구사.
- 백승중. (2002). *그 나라의 역사와 말*. 서울: 궁리출판사.
- 송종복. (1974). 이스라엘 모샤브 협동 조직에 관한 소고.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용하. (1976). *독립협회연구*. 서울: 일조각.
- \_\_\_\_\_. (1977). *신민회의 창건과 그 국권회복운동* (상), *한국학보*3(3). 31-75.
- \_\_\_\_\_. (1977). *신민회의 창건과 그 국권회복운동* (하), *한국학보*3(4). 123-188.
- \_\_\_\_\_. (1983). *신민회의 독립군기지창건운동*. *한국문화*(4). 69-106.

- \_\_\_\_\_. (1985). *한국민족독립운동사연구*, 서울: 을주문화사.
- 아시아경제연구소 (1975). *이스라엘의 집단농·협동농·노동기업*. 서울: 대학서림.
- 안상두. (1975). 발해 농장 시절의 백산. *나라사랑*(19). 133-137.
- 안상만. (1975). 조국광복에 투신한 민족 지도자. *나라사랑*(19). 117-132.
- 윤경노. (1990). *105인사건과 신민회연구*. 서울: 일지사.
- 이광수. (1962). *이광수 전집*. 서울: 삼중당.
- 이광수. (2013). *도산 안창호*. 서울: 흥사단출판부.
- 이석명. (2010). *노자와 황로학*. 서울: 소와당.
- 이석재. (1999). 일가 김용기의 농촌 이상촌 건설운동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환. (1923). 조선의 농민이여 단결하라. *개벽*(33). 21-27.
- 이순형. (1975). 도산 안창호의 이상촌 건설 운동. *제주대학교 논문집* 7(1), 161-180.
- 이필은. (1988). 이스라엘 농촌지역(기부츠)공동체 교육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치수 역. (2005). *도연명 전집*.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장규식. (2004). 1920-1930년 YMCA 농촌사업의 전개와 그 성격.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조동걸. (1979). *일제하 한국농민운동사*. 서울: 한길사.
- \_\_\_\_\_. (1983). *일제하 한국농민운동사*. 서울: 한길사.
- 조향래 외. (1993). *1900년대의 애국계몽운동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 좌옹 윤치호 문화사업회. (1998). *윤치호의 생애와 사상*. 서울: 을유문화사.
- 좌옹 윤치호 문화사업위원회. (1999). *좌옹윤치호선생약전*. 좌옹 윤치호 문화사업회.
- 주요한 편저. (1950). *안창호 전집*. 서울 : 삼중당.
- 차주환역. (2001). *도연명 전집*.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한규무. (1997). *일제하 한국기독교 농촌운동: 1925-1937*.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A study on the history of Idealistic Rural Community Movement —From the beginning until 1945—

Kwang Myung Lim

Pyengtaek University, Yongi-dong, Pyengtaek-si, Gyeonggi-do, South Korea.

### Abstract

Idealistic Rural Community Movement(Rural Utopia Movement) was one of the most powerful rural community movements in the world. Regardless of the East or the West, people started dreaming of happiness through idealization of rural communities as early as several centuries ago and have tried to implement this as a social movement to make the dream come true. Western rural utopia movement started when Thomas More published "Utopia" in England in 1516 and spread to many other countries in various forms. Chinese version of rural utopia was well portrayed in both "So Gook Gwa Min" (small population in a small country) written by Lao-tzu in the 6th century B.C. and "Arcadia" by Do, Yun-Myoung in the 4<sup>th</sup> century. In Korea, the rural utopia people pursued was vividly described in the following three.

First, Yul Do Gook portrayed in "Hong Gil Dong Jun" written by Hu Gyoon. Second, Gong Do portrayed in "Hu Sang Jun" written by Park Ji Won. Third, Sin Min Hwe's rural utopia movement made in the entire nation as well as Manchuria and America so as to save the country, which contributed to protecting the rural communities and arousing hopes in farmers by making a good model. This movement is especially important in that it became the foundation of modernization of Korea through Ga Na An(Canaan) Farmers' School and Sae Ma Ul Woon Dong(New village movement), which

were heavily influenced by continued Sin Min Hwe's rural utopia movement.

**key words : Utopia, Idealistic Rural Community Movement, Social Movement**





Kwang Myung Lim is an adjunct professor of dept. of general education in Pyengtaek University,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 on Idealistic Rural Community Movement.

Adress: Pyengtaek University, Yongi-dong, Pyengtaek-si, Gyeonggi-do, South Korea.  
e-mail) lkm3719@hanmail.net, phone)031-659-8114